

담양군, 전남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1위

체류인구 등록인구의 7.7배...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39만 8천여 명 기록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전라남도 16개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담양군의 평균 생활인구는 39만 8,258명으로, 이 중 체류인구는 35만 2,545명,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등록)는 4만 5,712명으로 나타났다.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7.7배에 달하며, 이는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1위 기록이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된 인구로,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체류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국내거소신고자인 ‘등록인구’를 더한 지표다.

‘24년 12월 기준 타시도 거주자 비중은 83.7%로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 66.5%보다 컸으며, 3개월 내 재방문을 역시 45.5%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재방문율 4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분포해 세대 구분 없이 다양한 방문 수요가 있음을 보여줬다.

군은 오는 9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정원문화원을 비롯해 군민생활체육공원·반다비체육센터·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과 남부권 광역관광 야간 콘텐츠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인구 유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장성군과 관광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전남 함평군이 폭염과 폭우 등 기상재해가 예상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함평군은 올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작물 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 지원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벼는 감수분열기(38℃ 이상)와 개화수정기(35℃ 이상)에 고온장해 발생 우

함평군, 농업인과 함께... 여름철 기상재해 선제 대응

려가 높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관개용수가 확보된 논에서는 물 흘려대기를 실시해 논의 수온을 낮추고, 규산과 칼륨 비료를 적절히 시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 관리와 온도 저

감이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토양 상태를 점검해 주 1~2회 이상 충분히 물을 주고, 차광, 미세살수 장치, 염면시비 등을 활용해 작물 생육을 도와야 한다.

또한, 병해충 예방을 위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대비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 농업인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과 농작업 안전교육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2025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고온기 시설원에 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도 병행 중이다.

함평/전광훈 기자

영암군 효도복지, 경로당 안전 3종 패키지 가동 중 책임보험 가입, 냉방기 청소 및 방역소독 중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군정 핵심 가치인 ‘효도복지’의 하나로 여름 폭염 대비 ‘경로당 안전 3종 패키지’를 가동 중이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영암 전체 경로당 467곳을 폭염안심지대로 지정한 영암군은, ‘냉방기 청소’ ‘책임보험’ ‘방역소독’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지난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6/20일 현재 160곳의 에어컨을 청소하고, 227곳의 방역소독을 마친 영암군은, 7월 말까지 79곳 에어컨 청소와 226곳 방역소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작업은 에어컨 필터를 고압 세척기로 세정하는 등 청소·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냉방 효율 향상과 실내 공기질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여름철 전염병·해충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소독은, 인체에 해가 없는 약품으로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책임보험 일괄 가입 지원으로 경로당 이용 중 어르신들

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번 경로당 안전 3종 패키지 이외에도 민선 8기 영암군은 지난 3년간 127개소 경로당 에어컨을 설치해 왔다.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 26개소, 2024년 54개 경로당에 새 에어컨을 보급하고, 올해 7월에는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7개소에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이다.

읍·면 수요파악을 거쳐 선정된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한 다음, 전력설비 안정성 점검, 사용자 교육 등으로 냉방기 안전 사용 환경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무더운 여름철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시원하게, 단 한 분도 사고없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곡성군,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준공식’ 성공 개최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난 27일 곡성의 새로운 치유산업 거점 공간인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준공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해 강덕구 곡성군의회 의장, 진호전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건립공사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곡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완공된 센터는 요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다. 또한 주민공동체 활동과 지역 특산물 산업을 연계하는 문화 거점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영광군, 청년부군수와 청년공동체 본격 ‘출발’

영광군(영광군수 장세일)은 지난 27일 전남형 청년공동체 6개 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 마련 및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공동체는 ▲그림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음악가 공연개최 ▲관광콘텐츠 청년 홍보장구 운영 ▲청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개발 및 커뮤니티 멤버십 운영 ▲반려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보조금 집행 교육과 함께 청년부군수(조아라)의 공동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팀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체 간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영광/이현식 기자



무안군 자원봉사센터, 무안연꽃축제장 온기나눔 플로깅활동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28회 무안연꽃축제에서 깨끗한 축제장 환경 조성을 위해 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플로깅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관내 자원봉사단체, 청소년, 주민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축제장 일원과 주차장 주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주민참여형 축제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무안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연꽃축제의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봉사에 참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무안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